



자산전략 주간 포인트 시즌 2.

5월 넷째 주 《시장도 무난해질 순 없을까》

SK증권 자산전략부

채권전략. 윤원태 3773-8919, yunwt@sks.co.kr
주식전략. 강재현 3773-9922, jaehyun.kang@sks.co.kr
퀀트전략. 황지우 3773-8072, jeewoo.hwang@sks.co.kr
경제환율. 류진이 3773-9226, jinleecon@sks.co.kr
R.A. 박유진 3773-9938, youjin.park@sks.co.kr
R.A. 원유승 3773-9181, ys.won@sks.co.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 3 주간 Check Point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경제/금리 5월 금통위도 무난하게 소화, 남은 건 다시 6월 FOMC

- 전일 5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3.50% 만장일치 동결 결정. 향후 3개월 금리 경로에 관해선 5명 동결, 1명 인하 소수의견 유지
- 가장 특징적인 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물가 전망치는 유지했다는 점. 성장률 상향 조정이 예상했던 내수가 아니라 순수출에 대부분 기인함에 따름. 직전 회의 대비 물가 상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성장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리 인하 개시를 위한 명분은 점진적으로 쌓아 나가는 모습
- 미국 FOMC 의사록 비교적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음에도 대비되었던 금통위 내용 소화하며 국고채 금리는 만기별로 약 1-2bp 하락 마감
-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부재하지만 연준 블랙아웃 기간 앞두고 연준 위원 연설 다수 예정. FOMC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점도 6월 FOMC까지 부담으로 남아있을 듯

주식 전략 이미 너무 낮아진 변동성과 위험. 이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투심 소폭 훼손될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

- 엔비디아를 마지막으로 실적시즌 마무리 되면서 이익 모멘텀 견인으로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6월에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또한 지금부터 월초까지는 금리 현 수준보다 상승하며 주식시장 투자 심리도 소폭 훼손될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 최근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 결과 금리가 4월 중 이미 낮아진 상태였고 5월 중 발표된 4월 경제지표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5월 지표가 더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크기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 이는 금리의 되돌림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지금 당장 이익과 주주환원 모멘텀 개선 이어지는 종목 및 업종들은 더욱 주목 받게 될 전망. 현재로서는 자동차, 기계 업종이 이에 해당. 스타일 상으로도 가치, 배당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최근 일부 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이 재차 하락하며 '싸다'는 투자 포인트가 부각될 수도 있음. 에너지, 철강, 건설, IT가전, 호텔레저, 건강관리, 미디어 등이 이에 해당. 대부분이 성장 스타일이기에 금리 상승이 이들 업종 주가 상승을 제한하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기회는 만들어 질 수도 있을 듯



Part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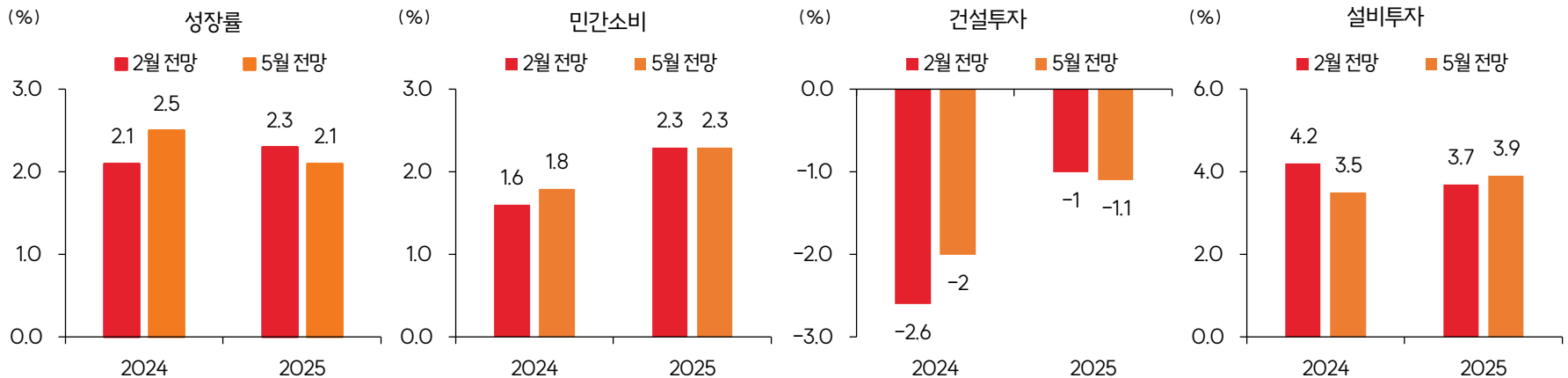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성장률 상향 조정에도 인하여지 남겨두는 한은

● 5월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향후 3개월 내 인하 소수의견 1명 유지

- 5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3.50%).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열어두는 모습. 금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물가 전망치를 2.6%로 유지
- 성장률 조정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를 유지한 이유로는, 이창용 총재는 ①성장세 강화로 물가에도 상방 압력 발생했지만, 물가 전망치에 대한 영향력은 소수점 둘째자리에 그쳤다는 점과 ②성장률 상향 조정이 내수 부문보다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컸다는 점, ③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제시
- 현재 높은 물가 수준에 대해서도 근원 소비자물가와 함께 비교하며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 구체적으로 성장률을 0.5%p 상향 조정된 배경으로는 1분기 내수 부문의 서프라이즈도 있었지만, 내수 부문의 영향력은 0.1%p에 불과하고 0.4%p는 순수출의 개선이 기여했다고 설명. 내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던 수준'으로 평가하며 하반기는 수출 경기가 성장률 견인할 것으로 예상
- 5월 2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했으나, 이는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 일평균 기준 17.7% 증가. 수출 물량과 단가 모두 개선되는 모습으로, 수출 호조세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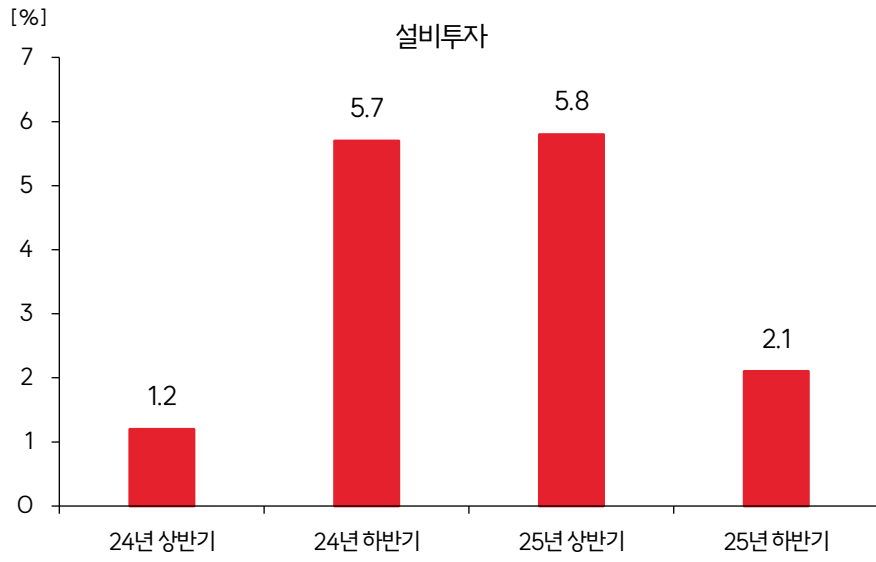
한은 수정경제전망 2월 vs 5월



하반기 크레딧 채권 발행량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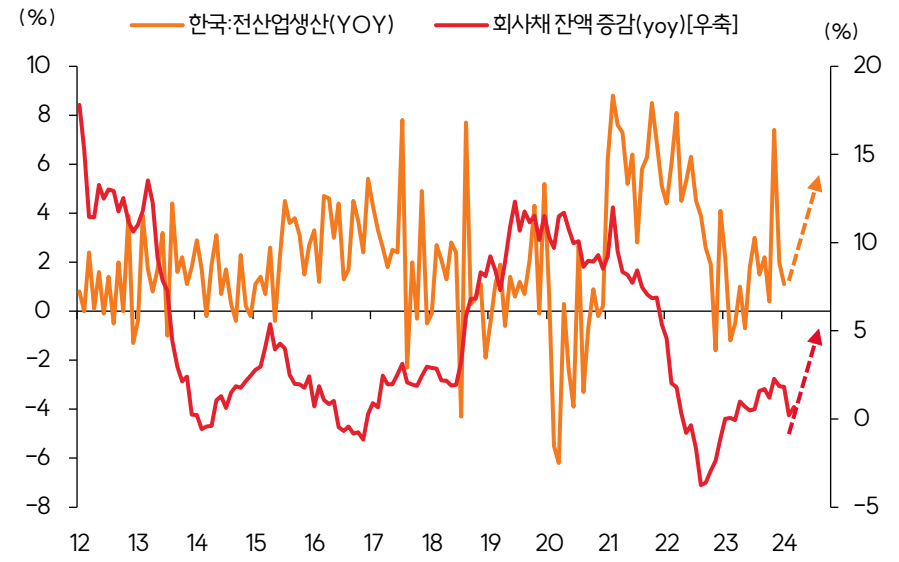
- 5월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설비투자 확대. 하반기 자금 조달 증가하며 크레딧 채권 발행 증가
 -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설비투자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기업 재고 줄어들며 설비투자 및 산업생산 지표 개선될 것. 하반기 시장 금리 하락할 경우 자금 조달 확대될 것
 - 하반기 전반적인 크레딧 채권 발행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업 자금 조달 확대와 가계 대출 증가 겹치며 은행채, 공사채, 회사채 발행 증가 예상
 - 하반기 크레딧 채권 시장 수급여건 악화 예상

한국은행 5월 경제전망 – 하반기부터 설비투자 확대



자료 : 한국은행, SK증권

설비투자 확대로 회사채 발행 증가



자료 : SK증권

최고의 주식: 이익과 배당 전망 상향 조정이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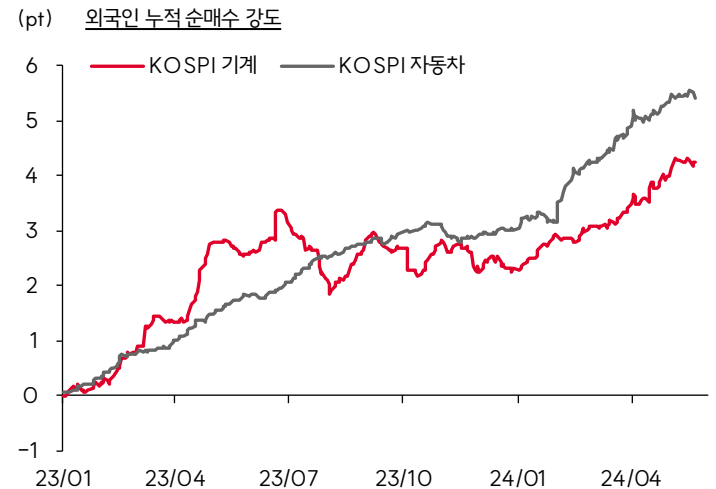
이익 추정치와 배당 추정치가 모두 증가한 업종이 가장 좋은 성과 기록

	최근 2주 수익률 (%)	FY24 순이익 추정치 변화율 (%)	FY24 현금배당 추정치 변화율 (%)	FY24 배당성향 추정치 (%)
자동차	6.3	5.5	3.5	20.2
기계	6.0	9.2	7.8	13.7
IT하드웨어	4.0	7.0	-8.9	11.6
필수소비재	2.6	3.3	-0.9	33.5
반도체	1.6	8.7	-0.2	20.4
화장품, 의류, 완구	1.4	-6.9	1.6	18.5
보험	1.2	6.8	28.1	39.4
에너지	0.3	-11.4	-6.3	24.5
비철, 목재등	0.1	19.4	-1.0	38.4
유틸리티	0.0	-21.9	5.0	13.3
통신서비스	-0.2	0.0	-0.6	52.6
건설, 건축관련	-0.8	0.5	-16.1	15.4
화학	-1.2	-1.0	-11.2	27.8
은행	-1.3	0.3	0.1	27.6
미디어, 교육	-1.5	-9.6	-4.5	44.3
소프트웨어	-2.0	9.8	0.8	14.9
호텔, 레저서비스	-2.9	4.5	3.8	70.1
철강	-3.1	-6.9	-0.6	37.9
건강관리	-3.5	5.3	7.6	10.8
상사, 자본재	-3.6	-5.5	-0.7	30.2
조선	-3.7	11.6	0.1	10.3
증권	-3.7	1.7	1.6	24.4
운송	-4.2	20.8	-2.1	23.9
디스플레이	-4.4	0.7	-13.7	-3.5
소매(유통)	-4.6	-1.4	-1.0	29.1
IT가전	-4.6	-3.9	-6.0	5.4

● 이익도 잘 날 것 같은데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도 많은 주식을 외국인은 강하게 매수

- 최근 증시가 박스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크게 오른 업종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됨. 1)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 되고 있으며 2) 배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 자동차, 기계 등
- 이러한 업종을 외국인은 크게 선호. 외국인 매수세에 의하여 주가 상승 강도 강해지는 것으로 보임

기계, 자동차 업종 외국인 순매수 강도 강화



주 : 추정치 변화율은 4월 말 대비 / 자료 : Refinitiv,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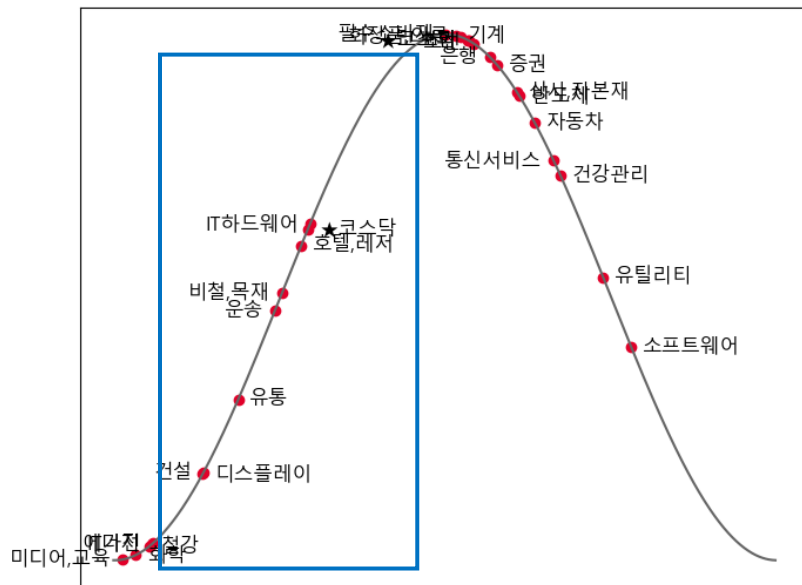
자료 : Quantwise, SK증권

탄력 받는 Value Cycle

● 유지되는 방향성

- 예상치를 하회한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사이클 방향성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음
- 소프트웨어, 비철/목재, 운송, 증권, 호텔/레저 등 전 주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들의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중

사이클 상승 업종



자료 : Quantiwise, SK증권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에 많이 포함된 가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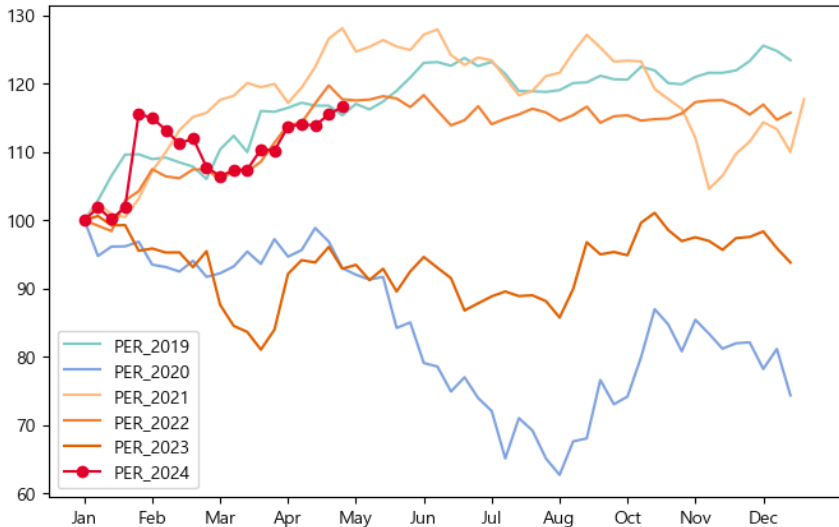
자료 : Quantiwise, SK증권

불확실성을 꼭 맞추지 않고 피하는 것도 방법

● **현재로써 불확실성 이벤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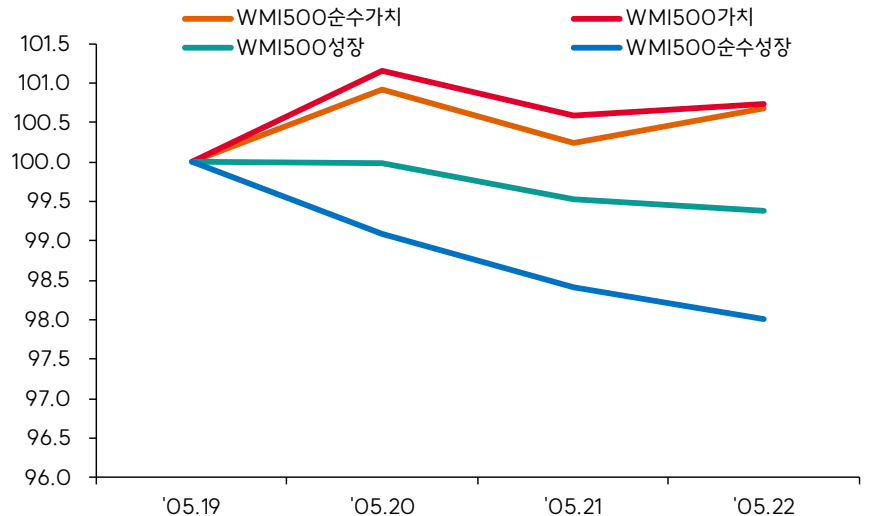
- 최근 기술/성장주의 이익 추정치가 크게 상향되어 관련 종목들이 다소 포함되었으나 가치주 장세가 지속되면서 리밸런싱된 이익 모멘텀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
- 전주에는 CPI 발표 이후에도 경제 지표 혼조세에 따라 Value 우세 장세가 지속됨
- 이번 주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기존의 AI 테마의 견조함을 재확인 하였으나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들이 주목을 받으며 증시는 재차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음
- 기술/성장주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동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확실해 보이는 중국의 제조업 회복세에 대한 리스크 노출을 높이는 전략, 즉 경기 민감 업종들이 많이 포함된 중소형 밸류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함

중소형주(시가총액 2조 이상) 기준 이익 모멘텀 전략 L-S 수익률



자료 : Quantiwise, SK증권

스타일 지수 주간 수익률 추이



자료 : Quantiwise,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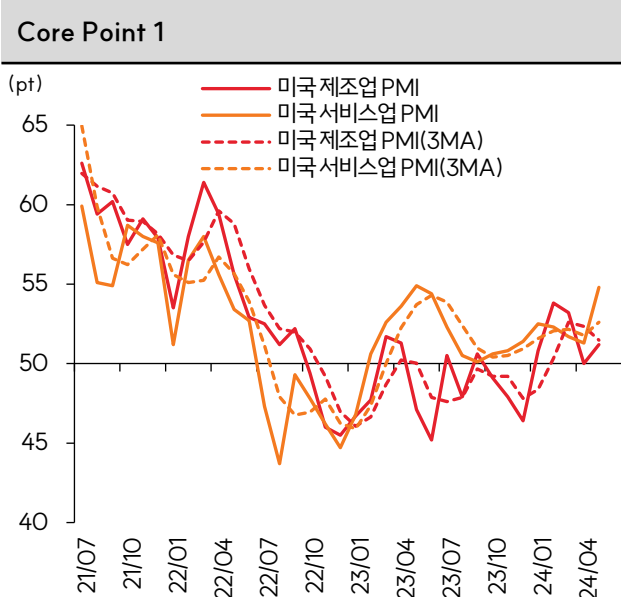
Part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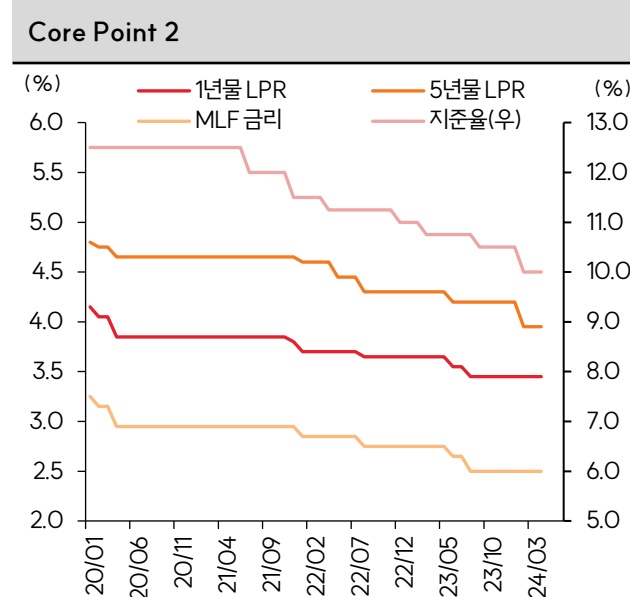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Macro Core 3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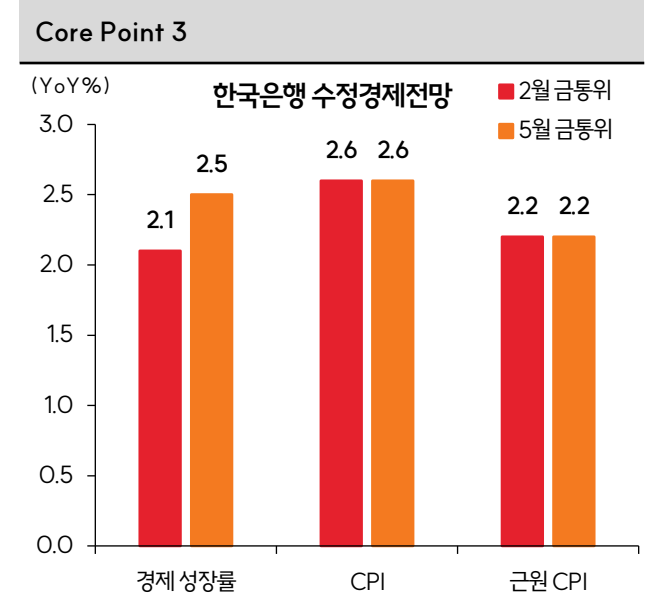
- **Core Point 1: 미국 5월 S&P글로벌 PMI, 서프라이즈**
 - 미국 5월 S&P글로벌 서비스업 PMI(잠), 54.8로 예상(51.2) 및 전월(51.3) 크게 상회. 제조업 PMI도 50.9로 예상(50) 및 전월(50) 상회
- **Core Point 2: 중국 5월 대출우대금리(LPR), 예상된 동결**
 - 중국 인민은행(PBOC), 5월 사실상 기준 금리인 1년물·5년물 대출우대금리(LPR) 3.45%, 3.95%로 동결. 다만 예상되었던 결과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현재 중국은 5월 17일 발표된 부동산 부양책 속 주택공적금대출 금리 하향에서 드러나듯이 선별적 지원에 초점
- **Core Point 3: 한국은행 5월 금융통화위원회, 성장률 전망 대폭 상향했으나 물가 전망은 유지**
 - 한국은행, 5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3.50%로 11회 연속 동결. 성장 전망은 24년 +2.5%로 2월(+2.1%) 대비 상향, 25년은 +2.1%로 2월(+2.3%) 대비 하향. 반면 물가 전망은 24년 헤드라인 CPI(+2.6%), 근원 CPI(+2.2%) 모두 유지. 1분기 성장의 ¾이 물가 압력이 약한 순수출에서 기인했기 때문



자료 : Bloomberg, SK증권



자료 : Bloomberg, CEIC,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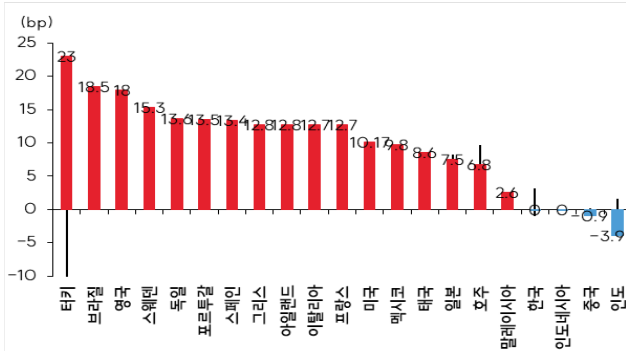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SK증권
주 : 24년도 대상 전망치임

2. FICC Core 3 Point

- 주간 글로벌 금리는 상승.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매파적인 5월 FOMC 의사록 및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서프르 상승하여 4.48% 기록
- 유가는 원유 재고 증가 및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로 하락해 77달러 기록. 천연가스는 전력 수요 증대 및 캐나다 산불에 따른 공급 차질 전망에 17.6% 급등. 환율은 1360원대 유지

금리

1) 글로벌 금리 주간 상승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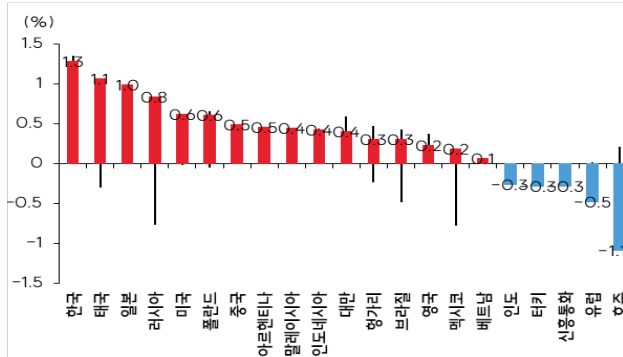
2)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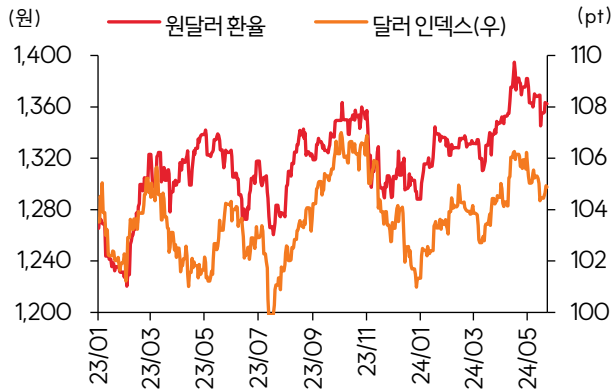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환율

1) 글로벌 달러대비 주간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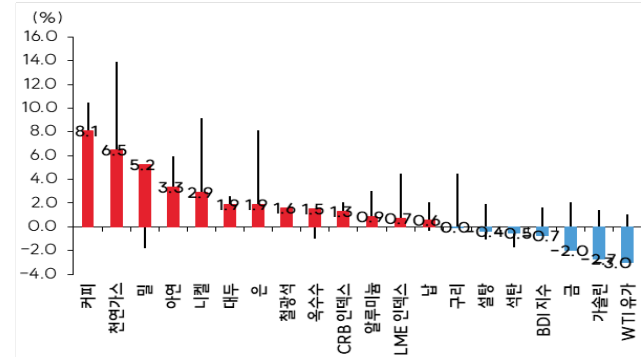
2)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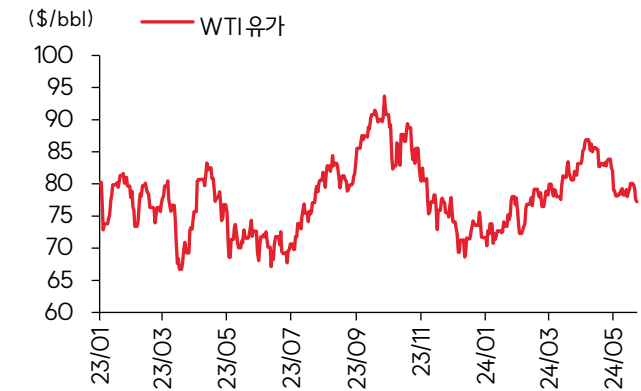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원자재

1) 주요 원자재 주간 상승률



2) 국제유가 변동(WTI 기준)



자료 : Bloomberg, SK증권

3. 위험과 자산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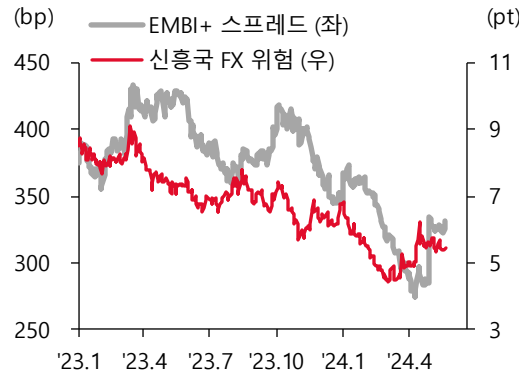
- Citi 매크로 리스크 지수는 4월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 중. 금융시장에서 매크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유가가 70\$/bbl 후반대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음. 주간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비축유 100만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가 하방 압력 확대되는 모습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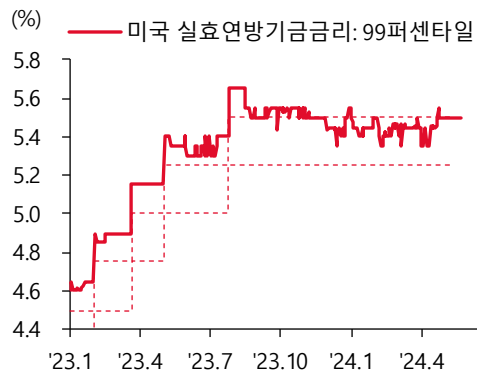
(1) 금융시장



(2) 신흥국



(3) 단기자금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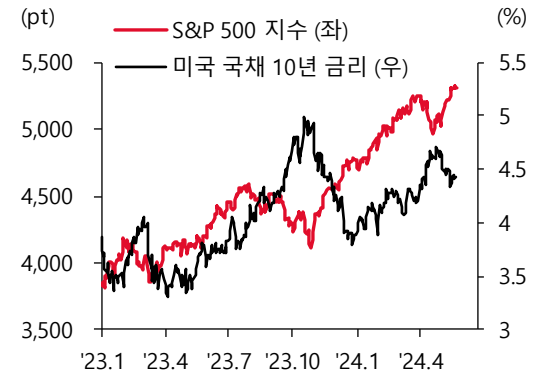


(4) 신용



자산가격

(1) 금리 vs 주식



(2) 원자재 vs 달러



4. 글로벌 주식시장: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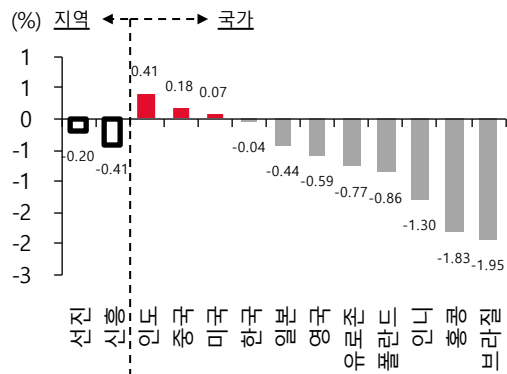
- 위험 선호 심리는 계속 되었지만 글로벌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 선진 및 신흥 증시 모두 소폭 하락. 인도와 중국 증시가 전주 대비 상승했지만 그 외 신흥국이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 받았음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다시 한 번 I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 이는 곧 모멘텀 및 퀄리티의 아웃퍼폼으로도 연결되었음

주식: 지역/국가

(1) 글로벌 증시 추이 및 선진 vs 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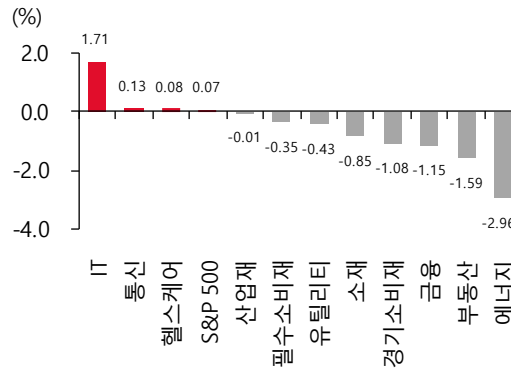


(2) 국가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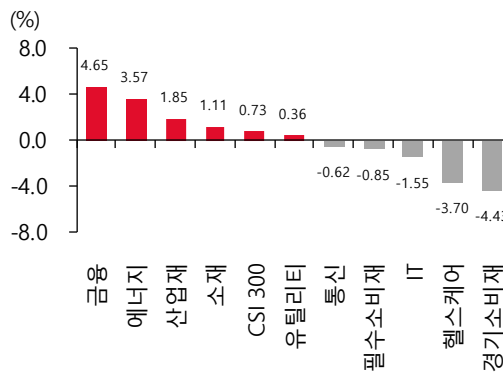


주식: 섹터

(1) 미국 S&P 5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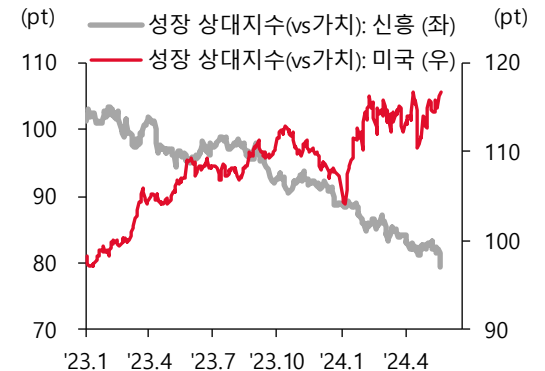


(2) 중국 CSI 3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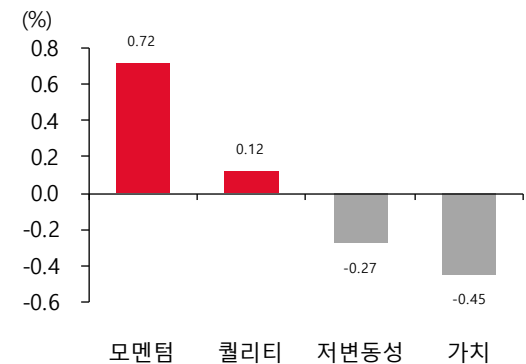


주식: 스타일

(1) 미국 및 신흥 증시: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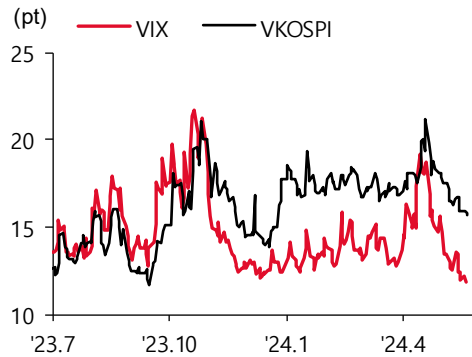


5. 글로벌 주식시장: 심리와 기술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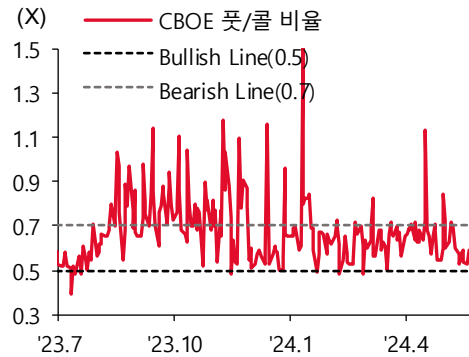
- 증시 변동성 극도로 낮아졌음. VIX 지수는 연초보다도 낮았고 액티브 매니저들의 익스포저 지수도 재차 크게 상승
- 미국 및 한국 증시의 단기 기술적 부담 크게 높아진 상태

심리 지표

(1) 변동성 지수: 미국 vs 한국



(2) 미국 개별 주식 옵션 거래 비율



(3) 미국 액티브 매니저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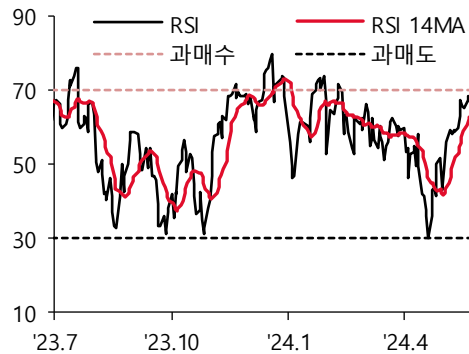


기술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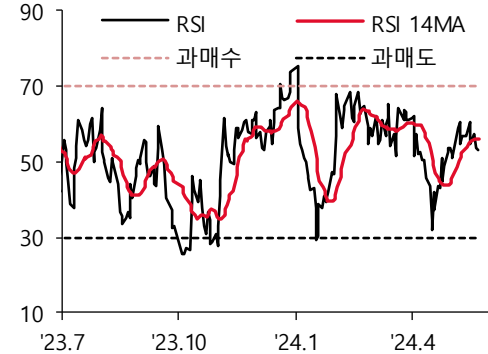
(1) RSI: 미국 S&P 500



(2) RSI: 미국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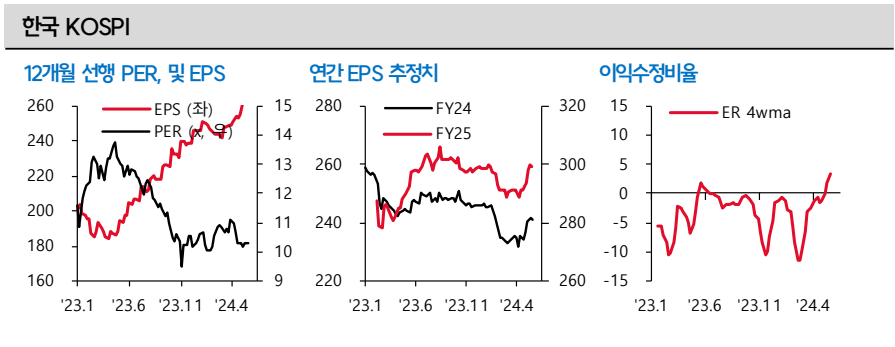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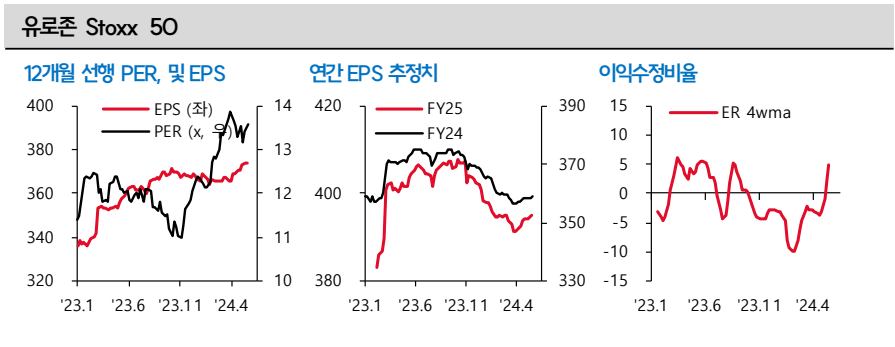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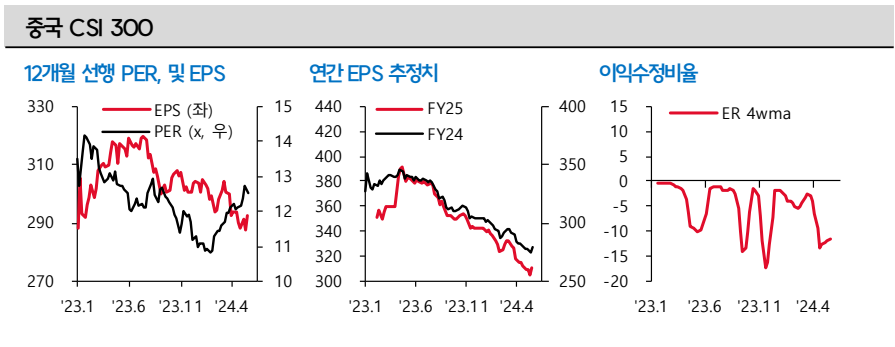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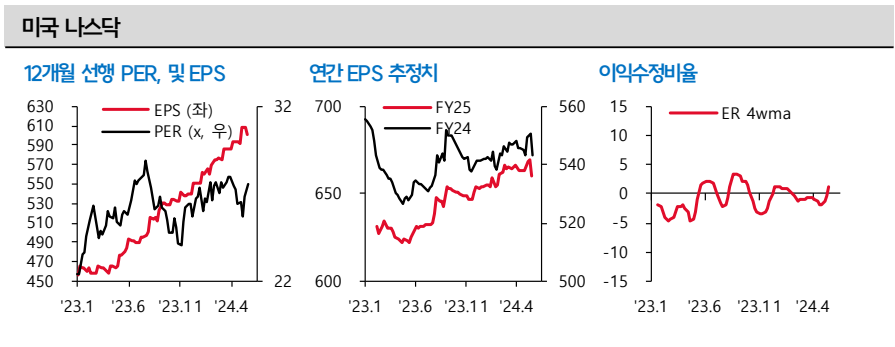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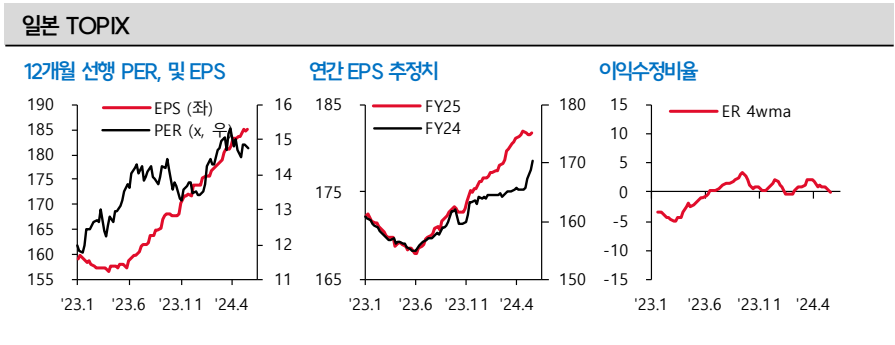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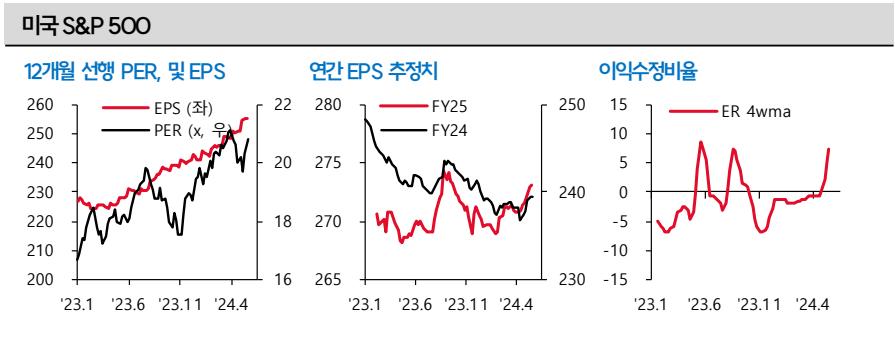


(3) RSI: 한국 KOSPI



6. 글로벌 주식시장: 이익과 밸류에이션

- 이익 모멘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양새. 이익수정비율의 경우 미국, 유럽, 한국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 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
- 일본만 '24년과 '25년 이익 추정치의 방향이 서로 다름. 최근 들어 '24년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반면 '25년 추정치는 소폭 하향 조정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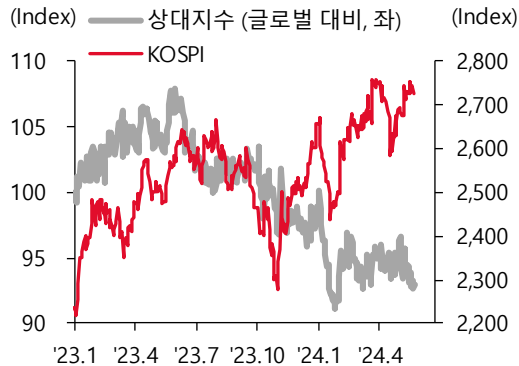


7. 국내 주식시장: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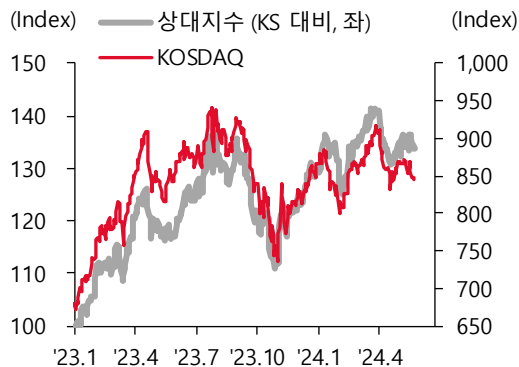
- KOSPI 지수는 계속 해서 2,750선을 넘기지는 못하는 모습. 강력한 순환매 속 지수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 보험 업종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회계 불확실성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 한편 HLB 신약 승인 불발로 인해 건강관리 주가도 크게 부진했으며 2차전지 조정도 이어지는 모습
- 23일 미국 PMI 서프라이즈로 금리 급등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재차 조정 받을 가능성. 금주에 부진했던 성장 스타일 추가 하락 예상

시장

(1) KOSPI 지수 (+글로벌 증시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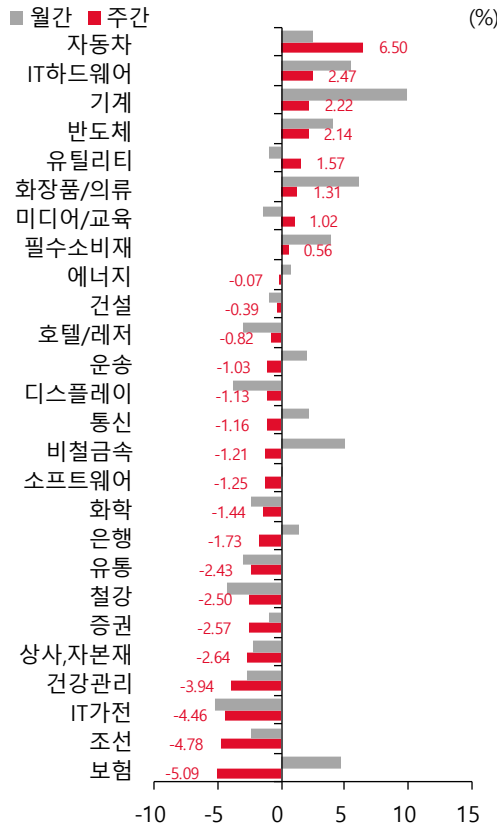


(2) KOSDAQ 지수 (+KOSPI 지수 대비)



섹터

KOSPI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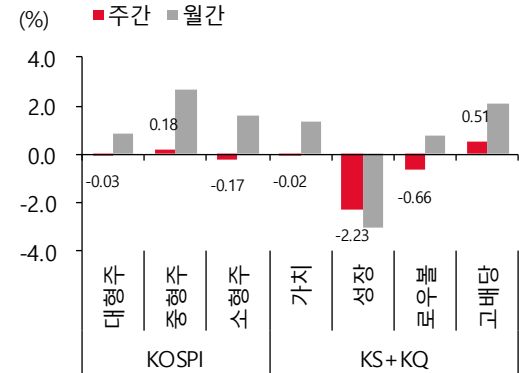


스타일

(1)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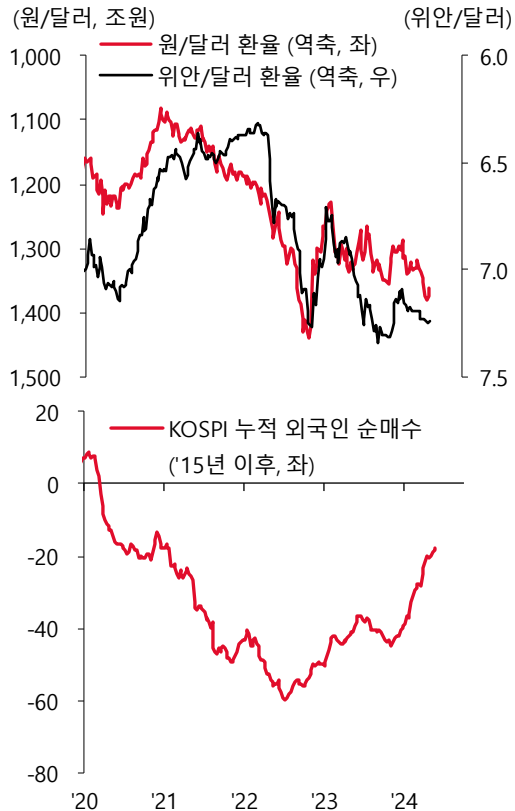


8. 국내 주식시장: 수급

-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고 있음. 금주에는 5,310억원 순매수. 자동차, 비철금속, 기계, 반도체, 유틸리티, IT하드웨어 등을 강하게 매수. 이들은 대부분 최근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들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와 기계의 경우 주주환원 기대까지도 높아지고 있음
- 기관도 외국인의 자동차 매수에 가세. 외국인과의 차이점은 화학, 철강, 필수소비재를 순매수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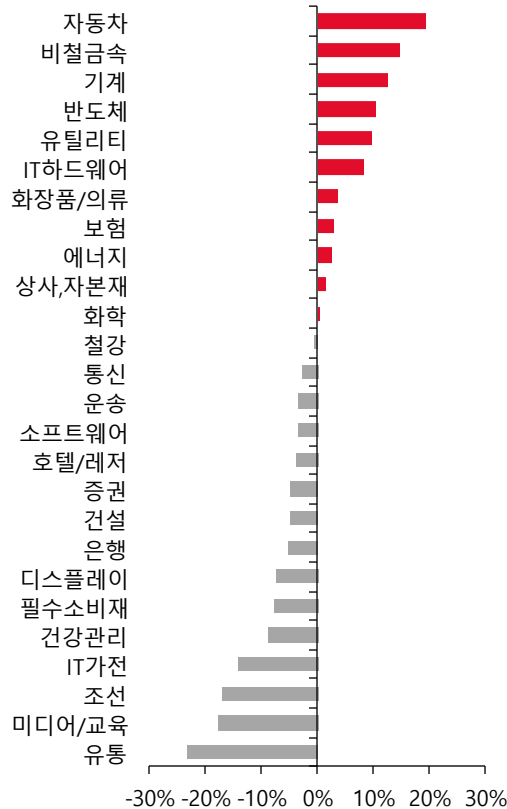
수급: 시장

KOSPI 외국인 순매수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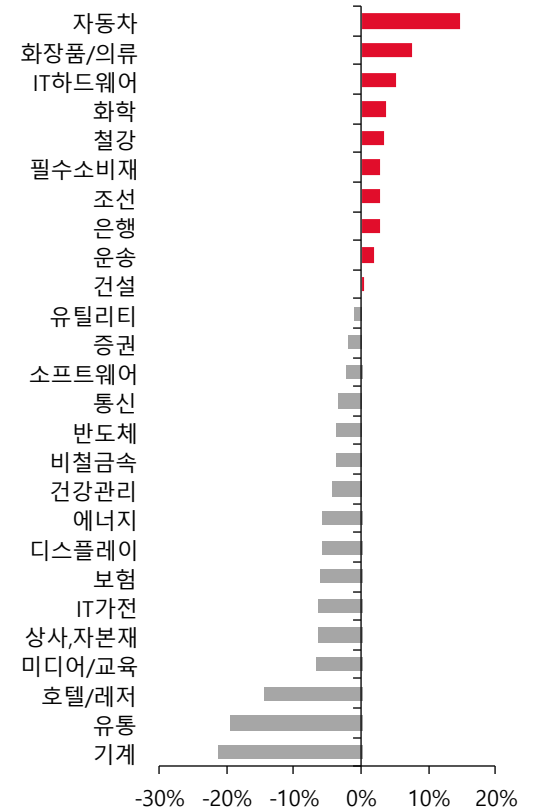


수급: 섹터

1) 주간 KOSPI 섹터별 외국인 순매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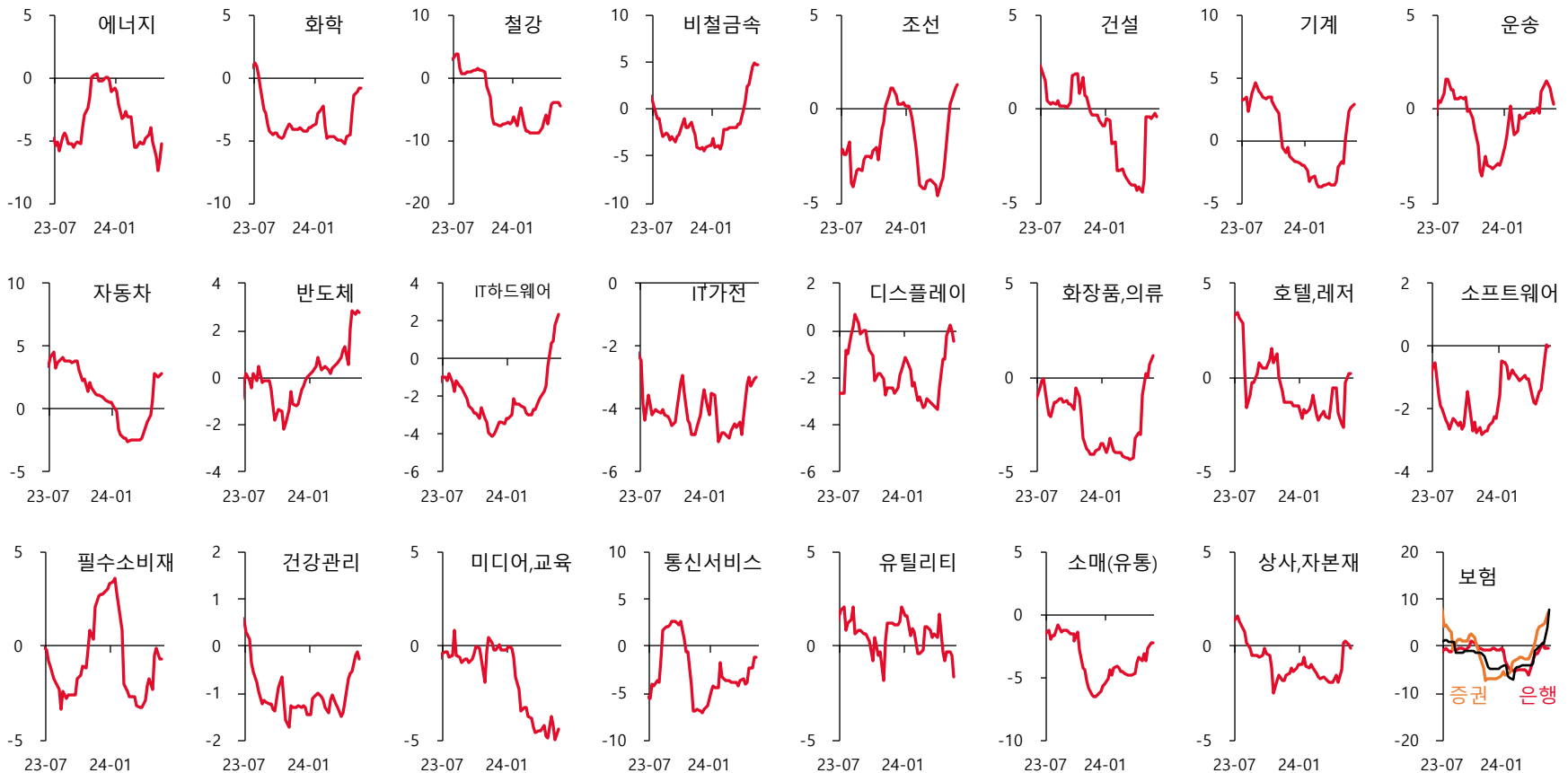
2) 주간 KOSPI 섹터별 기관 순매수 강도



9. 국내 주식시장: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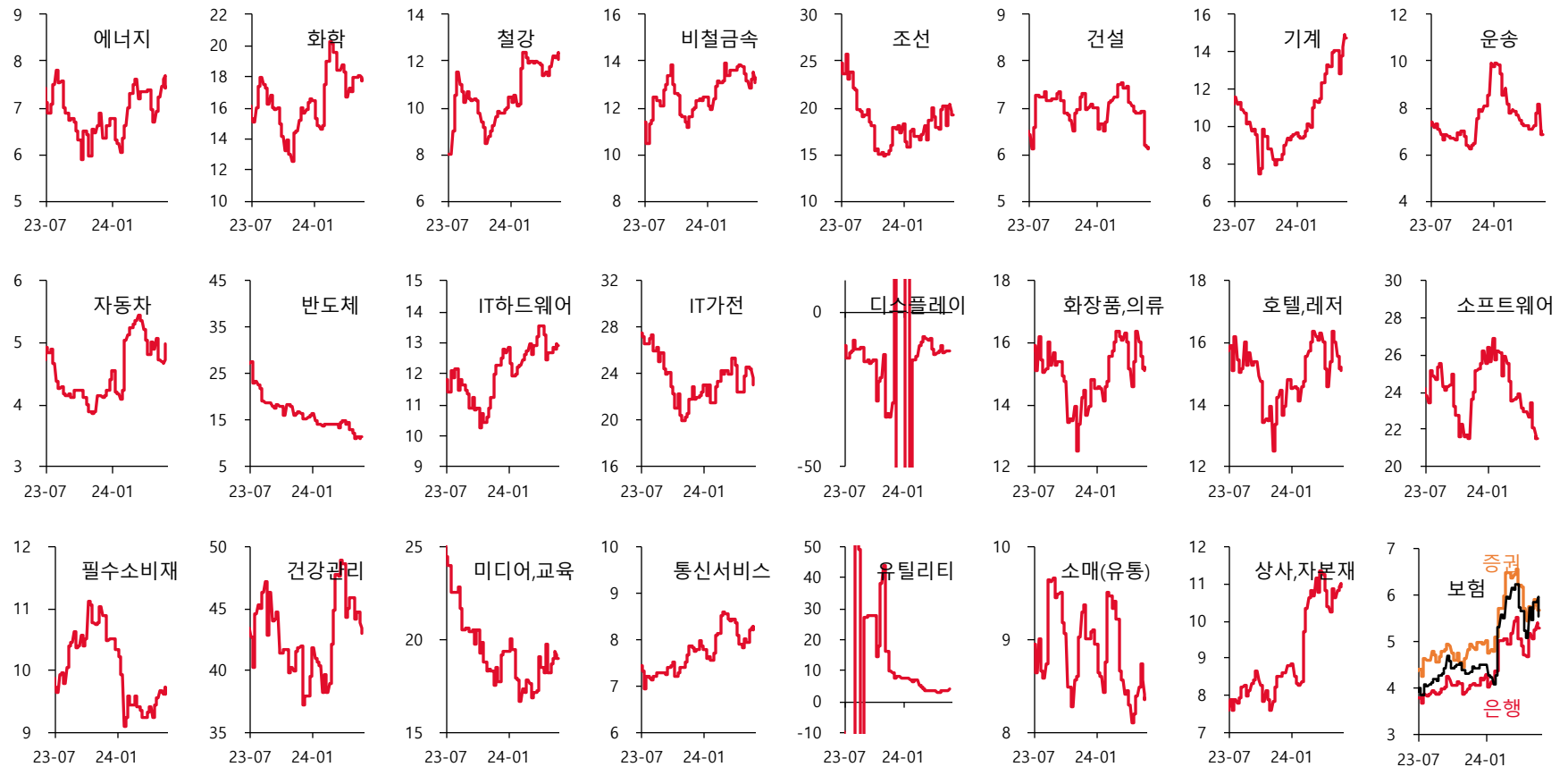
- 대부분 업종에서 이익 모멘텀은 살짝 둔화되는 양상. 그래도 조선, 기계, IT하드웨어, 화장품, 소프트웨어의 이익수정비율은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 유지 중. 특히 소프트웨어는 (+)권에 새로이 진입
- 반면 디스플레이, 지주 업종 이익수정비율이 반락하며 다시 (-)권으로 내려 왔음

KOSPI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



10-1.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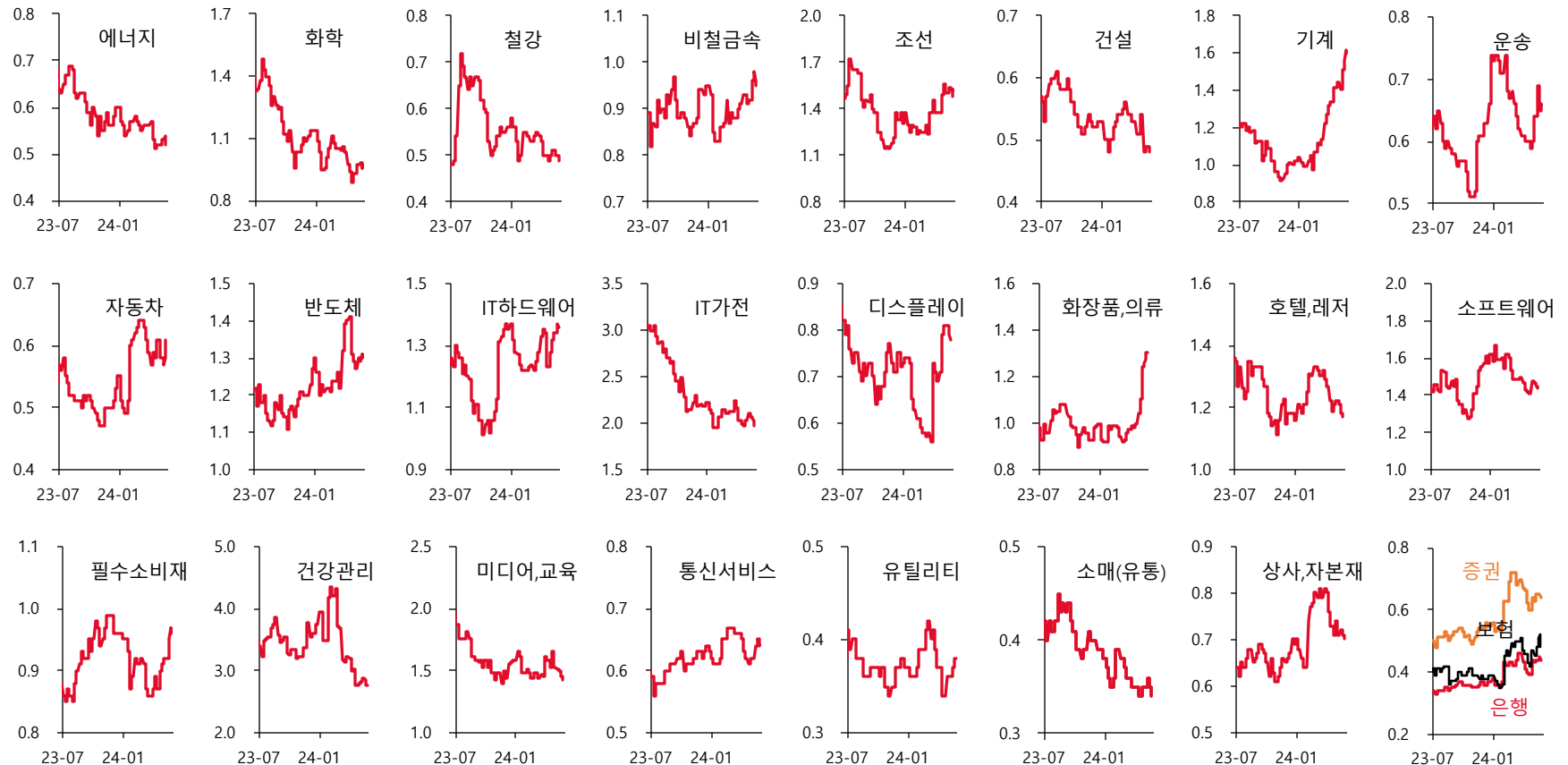
KOSPI 섹터별 12MF PER (X)



10-2.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 비철금속 PBR은 1배 수준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중. 기계, 화장품 업종의 밸류에이션 상승은 여전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 화장품은 이익 모멘텀이 확실하게 개선되면서 PER 상승 부담은 완화되었음
- 에너지, 철강, 건설, IT가전, 호텔레저, 건강관리, 미디어 등의 PBR은 재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다'는 투자 포인트 부각될 수 있는 위치로 돌아 갔음

KOSPI 섹터별 12MF PBR (X)



11. 국내 주식시장: 종목

- 이익 모멘텀 상위 업종에 화장품 업종 종목 다수 랭크(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코스맥스 등). 그 외에는 대부분 자동차, 기계, 화학, 조선 등 경기민감 업종들이 차지. 특히 세방전지, 금호타이어 등 부품주들의 이익 모멘텀이 양호했고 외국인들이 이들을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
- LS ELECTRIC, PI첨단소재, HD한국조선해양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 강도 모두 강했음. 반면 세방전지, HD현대일렉트릭, 금호타이어, 아모레퍼시픽은 외국인 관심은 지대했으나 기관 수급은 강하지 못했음. 기관 빈 집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

KOSPI 200 주간 종목 동향: 이익 모멘텀 상위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시총 (조원)	12m fwd. EPS (x)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이익수정비율 (%)		주가 수익률 (%)			수급주체별 주간 순매수강도: 코스피 종목 내 백분율 (높을수록 수급 강함)		
							현재	-1W	현재	-1W	1W	1M	YTD	외국인	기관	개인
1	A004490	세방전지	자동차	1.58	9.7	매수	145,000	145,000	100.0	100.0	8.5	29.4	93.8	76%	35%	34%
2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9.70	22.62	매수	295,900	295,900	90.0	90.0	12.3	27.2	227.3	99%	5%	1%
3	A073240	금호타이어	자동차	2.23	7.76	매수	9,200	9,200	83.3	83.3	-0.9	30.6	44.0	81%	20%	26%
4	A090430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의류,완구	9.88	30.64	매수	203,929	203,929	78.6	78.6	-2.6	30.7	16.5	93%	8%	10%
5	A010120	LS ELECTRIC	기계	5.14	19.18	매수	187,556	187,556	66.7	66.7	2.2	38.2	133.9	97%	78%	6%
6	A178920	PI첨단소재	화학	0.83	21.61	매수	32,800	32,800	100.0	100.0	35.3	42.2	-7.5	79%	81%	18%
7	A000270	기아	자동차	44.91	4.45	매수	148,565	148,565	87.0	82.6	-6.6	3.4	11.7	93%	0%	98%
8	A272210	한화시스템	상사,자본재	3.52	21.31	매수	23,871	23,871	71.4	71.4	-5.5	8.6	7.2	79%	5%	86%
9	A002380	KCC	건설,건축관련	2.53	6.04	매수	390,000	390,000	66.7	66.7	15.2	14.5	24.7	88%	45%	16%
10	A003230	삼양식품	필수소비재	2.34	14.03	매수	320,000	320,000	50.0	50.0	2.5	39.3	43.5	66%	15%	70%
11	A039130	하나투어	호텔,레저서비스	0.96	13.08	매수	78,400	78,400	75.0	50.0	-3.1	5.3	15.2	15%	21%	91%
12	A039490	키움증권	증권	3.27	4.81	매수	155,308	155,308	66.7	66.7	-2.1	2.1	28.8	69%	16%	54%
13	A002790	아모레G	화장품,의류,완구	2.74	16.19	매수	42,400	42,400	50.0	50.0	-1.0	22.5	13.7	65%	13%	75%
14	A298020	효성티앤씨	화장품,의류,완구	1.57	8	매수	478,571	478,571	71.4	71.4	-0.1	11.2	-0.4	21%	75%	50%
15	A009540	HD한국조선해양	조선	9.17	9.27	매수	171,333	171,333	44.4	33.3	0.0	9.2	7.1	80%	91%	10%
16	A000210	DL	화학	1.14	5.43	매수	75,667	75,667	33.3	33.3	-5.2	2.8	6.0	68%	18%	49%
17	A071050	한국금융지주	증권	3.81	4.58	매수	83,462	83,462	66.7	58.3	5.2	4.0	11.4	82%	52%	23%
18	A000720	현대건설	건설,건축관련	3.94	6.49	매수	47,882	47,882	82.4	70.6	-0.1	7.1	1.3	90%	39%	14%
19	A192820	코스맥스	화장품,의류,완구	1.63	13.36	매수	173,000	173,000	35.7	35.7	3.6	14.7	13.5	61%	34%	48%
20	A241560	두산밥캣	기계	5.37	6.51	매수	67,875	67,875	37.5	37.5	3.1	0.0	6.4	72%	45%	29%

주: 코스피 200 지수 내 투자 의견 중립 이상 종목 중 1. 이익수정비율(1M) 레벨 높고, 2. 이익수정비율(1M) 전주대비 개선된 폭 높고, 3. 목표주가 상향률(1M) 높은 종목 순)

자료: SK증권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art 3.

**주간
Check Point**

주간 경제 캘린더

날짜	국가	지표	실제	예상	이전	
5/20 (월)	중국	LPR 1년·5년 금리 결정 (%) (5월)	3.45 3.95	3.45 3.95	3.45 3.95	
5/21 (화)	유로존	무역수지 (십억달러) (3월)	24.1	19.9	23.6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pt) (5월)	98.4		100.7	
5/22 (수)	미국	기존주택판매 (백만건) (4월)	4.14	4.21	4.19	
	일본	무역수지 (십억달러) (4월)	-462.5	-339.5	387.0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4월)	2.3	2.1	3.2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4월)	1.8		1.6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MoM%) (4월)	0.3		0.2	
5/23 (목)	미국	S&P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 PMI(잠) (pt) (5월)	51.2 54.8	50.0 51.2	50.0 51.3	
	미국	신규 주택판매 (천건) (4월)	634	677	693	
	유로존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잠) (pt) (5월)	47.4 52.3	46.2 53.6	45.7 53.3	
	독일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잠) (pt) (5월)	45.4 53.9	43.4 53.5	42.5 53.2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5월)	3.50	3.50	3.50	
5/24 (금)	미국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확) (%) (5월)		3.5	3.2	
	미국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확) (%) (5월)		3.1	3.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확) (pt) (5월)		67.4	77.2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확) (pt) (5월)		66.5	76.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평가지수(확) (pt) (5월)		68.8	79.0	
	미국	헤드라인·근원 내구재 수주 (MoM%) (4월)			2.6 0.2	
	일본	헤드라인·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4월)			2.7 2.6	
	독일	GDP 성장률 (YoY%) (1Q)			-0.2	
5/27 (월)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pt) (5월)			89.4	
	5/28 (화)	미국	CB 소비자신뢰지수 (pt) (5월)			97.0
		미국	S&P/CS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MoM%) (3월)			0.9
		미국	주택가격지수 (MoM) (3월)			1.2
	5/29 (수)	독일	소비자물가지수(잠) (YoY%) (5월)			2.2
	5/30 (목)	미국	GDP 성장률(잠) (QoQ연율%) (1Q)		1.6	3.4
		미국	PCE 물가지수 (QoQ%) (1Q)			3.4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QoQ%) (1Q)			3.4
		미국	잠정주택 매매 (MoM%) (4월)			3.4
		유로존	실업률 (%) (4월)			6.5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pt) (5월)					
5/31 (금)	미국	헤드라인·근원 PCE 물가지수 (YoY%) (4월)		2.7 2.8	2.7 2.8	
	미국	헤드라인·근원 PCE 물가지수 (MoM%) (4월)		0.3 0.3	0.3 0.3	
	미국	애틀랜타 연은 GDPNow (QoQ연율%) (2Q)				
	중국	NBS 제조업 PMI (pt) (5월)			50.4	
	중국	NBS 서비스업 PMI (pt) (5월)			51.2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잠) (YoY%) (5월)			2.4	
	독일	소매판매 (MoM%) (4월)			1.8	
	일본	산업생산(잠)·소매판매 (MoM%) (4월)			4.4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YoY%) (4월)			1.4	
	한국	산업생산·소매판매 (MoM%) (4월)			-3.2 1.6	
한국	[토] 수출 (YoY%) (5월)			13.8		
한국	[토] 무역수지 (십억달러) (5월)			1.53		

일정	5월 4주	(수) FOMC 의사록 공개
	5월 5주	(월) 휴장(미국, 영국), (수) 연준 베이지북 (금) 미국 ASCO 임상중앙학회(~6/4)